I. 역사적 배경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Cyrus)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Cambyses: 530-522)가 왕위를 잇게 된다. 캄비세스 제국은 애굽지경까지 이르지만 (526/525), 그가 죽자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베히스툰 inscription에 의하면, 다리우스 1세가 518년 애굽을 치기까지 1년 남짓 동안 19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한다. 이 자료에 시리아-파레스틴의 반란은 기록하지 않지만, 학개 2:22에서 볼 수 있듯, 522년 캄비세스가 죽고 다리우스 제국이 서기까지의 기간은 다이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시기였을 것이다. (학개 2:21-22)

Number of the returned exiles

1.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42, 360+ many=>>엄청 많다
2. 학개: "제발 좀 고향으로 와라~~"
    a. Murashu (business) text (<u>ANET</u> 221f)
    b. Cyrus Cylinder (<u>ANET</u>, 315) 성전건축이 주 목적 (참조. 에스라 1:2-4; 6:3-5).
    c. According to Jeremiah, the total number of the exiles were 4,600.

** 에스라 2장의 숫자는 유토피아적 상황을 설정하고, 학개서가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 보다 가깝다.

Anyway, Ezra 5:16 says that Sheshbazzar (not mentioned in Haggai-Zechariah) was the one who laid a foundation. Ezra 3:3 asserts that Joshua set the altar, while 3:8-10 records that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According to Zech 4:9, Zerubbabel laid the foundation.

II. 스가랴

A. Vision report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땅에 두루 다님(1:10)	Focus: worldwide
둘째: 네 뿔: 유다/이스라엘/예루살렘의 대적	Focus: Judah and enemy nations
세째: 척량줄 (measuing rod)을 잡은 사람	Focus: Jerusalem
넷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Focus: Temple
다섯째: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	Focus: Temple precinct
여섯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Focus: Jerusalem
일곱째: 에바(惡)과 시날땅 (바벨론)	Focus: Judah and enemy nations
여덟째: 네 병거와 심판	Focus: worldwide

Visions 4 and 5 concentrate on Joshua and Zerubbabel respectively and their role in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ir function is to restore the ruined Jewish community under the Babylonian hegemony.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eight visions, then, these two visions constitute the centrality of visions, namely restoration. Two exhortations (2:10-17 [번역본2:6-13]; 6:9-15 further explain this theme and structure.

B. 성전건축과 사회건설. Who is responsible for rebuilding temple and for organizing/ruling the returned community? (Ezekiel 40-48)
Jerubabbel in Hag. 2:23 and Zech 4:6f

오늘의 묵상: "성서기자의 기록이 틀린 것으로 판명 났을 때, 신앙인의 태도는?"

예) <u>스가랴 11:12-13</u>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u>마태 27:9-10</u>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 "덮어 놓고 믿는다."
2. 부인하거나 변명한다.
3. 그런가~ 하고는 곧 잊어버린다.
4. 그래도 안 틀린 부분이 더 많다 하며 위안을 받는다.

정답: (사지선다형 문제에는 맞는 답이 없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성경은 두껍다.